

국내 사모대체 블라인드펀드(PEF) 위탁운용사 선정계획 공고

2019년도 공무원연금공단 국내 사모대체 블라인드펀드(PEF) 위탁운용사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1 선정 개요 및 주요 투자조건

구 분	Private Equity
운용방식	개별합동펀드(Blind형)
선정방식	공개모집을 통한 일괄심사방식
선정 운용사 수	3개사 이내
공단 출자규모	총 1,200억원 이내 (운용사당 400억원 이내)
공단 출자비율	제안펀드 최종 결성금액의 20% 이내
납입방식	수시납(Capital Call)
운용사 등 출자비율	제안내용에 따라 평가
보수 및 수수료	제안내용에 따라 평가(관리보수, 성과보수, 수탁 및 일반사무관리 수수료)
투자기구	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’에 의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(PEF)
펀드만기	10년 이내(연장 가능)
투자기간	설립일로부터 5년 이내(연장 가능)
기타	기타 세부 출자조건은 PE 일반 관행에 따름

2 지원 자격

- ☐ (운용사) 운용사 설립 후 2년이 경과하고, 제안펀드와 동일한 형태의 투자기구 설정액 누적합계가 1,000억원 이상일 것
- ☐ (운용사) 운용조직과 별도의 리스크관리, 컴플라이언스(Compliance) 조직 등 내부위험통제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
- ☐ (제안 펀드) 타 기관 출자확약(LOC) 30% 확보(운용사 출자액 포함)

3 선정 취소 및 제재 사항

- 선정된 운용사는 제안서의 제안내용 대로 제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, 아래의 사유 발생하는 경우 선정 취소함
 - 투자조건을 위탁운용사가 수용하지 않아 약관 협의 등 후속업무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
 - 제안서 내용이 허위 또는 의도적인 조작으로 밝혀질 경우
 - 위탁운용사 선정 후 출자계약 체결시점까지 당해 펀드의 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유가 발생할 경우
 - 그 밖에 공단 투자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
- 선정 취소 사유 중 제안서 내용이 허위 또는 의도적인 조작으로 밝혀질 경우,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의 범위 안에서 출자 제한

4

선정 절차 및 일정☐ 선정 절차

- 공고 → 제안서 접수 → 1차 정량평가(현장실사 병행) 및 결과 통보
→ 2차 구술심사 및 결과통보 → 최종 선정

☐ 일 정

일 자	내 용	비 고
2019.12.06. ~ 2019.12.17.	제안 공고 및 제안서 접수	마감일시 : '19.12.17.(화) 오후 4시
2019.12월 ~ 2020.1월 중	1차 정량평가 및 현장실사	2차 구술심사대상 개별통지
2020.1월 중	2차 구술심사	선정위원회 심사
2020.2월 중	최종 선정결과 발표	공단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통지

※ 상기 일정은 내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

5

지원 방법☐ 1차 심사(정량평가) 제출 서류

- 제안서("첨부1" 한글파일) 제본 8부

- 정량자료("첨부2" Excel파일) 1부

※ 이동식저장매체에 제안서, 정량자료 등(제안서 2p 제출서류 안내
참고) 저장하여 Hard Copy와 함께 제출

☐ 2차 심사(구술심사) 제출 서류

- 제안서 내용에 기반한 자유양식 PT 자료

※ 2차 구술심사 대상으로 선정된 운용사에 한함

□ 제출 방법(Soft Copy 및 Hard Copy 함께 제출)

○ Soft Copy : e-mail 송부

- e-mail 주소 : raykwon21@geps.or.kr

※ 파일명

· PEF 제안서 : 날짜(제출일)_기관명_펀드명_제안서_PEF

· PEF 정량자료 : 날짜(제출일)_기관명_펀드명_정량자료_PEF

○ Hard Copy : 직접방문 제출 또는 등기우편

- 우편 주소 : 공무원연금공단 자금운용단 대체투자부

(우 06152 /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508, 서울상록회관 3층)

□ 접수 마감일 : 2019.12.17.(화) 오후 4시

※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

6 문의 사항

□ 문 의 : 권순일 대리(02-560-2175, raykwon21@geps.or.kr)

문성철 대리(02-560-2903, scmun@geps.or.kr)

※ 우리 공단은 ESG 이슈를 우리의 자산소유와 관련한 정책과 실행에 반영함

2019. 12. 6.

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